

TRANS- HUMANITIES

Title : 규범에 순응하는 번역·저항하는 번역: 인식론적 토대와 사례 분석

Norms of Translation: Translation for or against Norms

Author(s) : 안미현 (AHN Mi-Hyun)

Source : *Trans-Humanities*, Vol. 7 No. 2 (2014), pp. 97-119

Published by : Ewha Womans University Press

URL : <http://eiheng.ewha.ac.kr/page.asp?pageid=book10&pagenum=060600>

Online ISSN : 2383-9899

All articles in *Trans-Humanities* are linked to the Homepage of KCI and Ewha Institute for the Humanities and can be downloaded:

www.kci.go.kr & <http://www.trans-humanities.org/>



이화여자대학교
EWha WOMANS UNIVERSITY

규범에 순응하는 번역·저항하는 번역: 인식론적 토대와 사례 분석

안미현 (목포대학교)

I. 들어가는 말

“표현한 것은 의미된 것의 최소한이다”(Foucault 158)라고 한 푸코의 말을 빌린다면, 텍스트 속에서 작가의 의도는 겉으로 드러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행간 속에 감추어져 있고, 심지어는 저자 자신이 미처 인식하지 못한 부분들도 적지 않다. 그렇다면 번역 행위는 텍스트에 표현된 것뿐 아니라 드러나지 않는 부분까지 읽어내는 과정이 된다. 이 과정에서 번역가의 해석은 저자의 의도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을 것이고 때로는 빗나가기도 한다면, 결과적으로 출발 텍스트의 의미가 어느 정도 변한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이른바 ‘저자의 죽음’ 이후 텍스트의 확정된 의미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는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이 불확정적인 의미를 결정하는 것은 번역가 개인의 자의적인 선택일까?

출발 텍스트의 의미를 결정하는 것이 번역가의 창의적인 결정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이는 번역가 개인이나 텍스트를 둘러싼 사회정치적, 문화적인 환경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곧 번역은 단순히 언어 간의 치환 관계에 머무르지 않고, 텍스트를 둘러싼 다양한 사회문화적 힘들의 상호 관계 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이다. 번역가는 예컨대 도착 언어의 우월하거나 열등한 지위에 의해 영향을 받기도 하고, 그 시대의 우세한 시적,

문학적 원칙으로부터도 자유롭지 않다. 뿐만 아니라 텍스트 선정에서부터 출판에 이르기까지 출판사를 비롯한 관련 기관이나 나아가서는 번역이 겨냥하고 있는 독자층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기 마련이다.

이 글에서는 번역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텍스트 내적·외적 요소들에 대해 논의하고자 하는데, 이들을 테오 허만스(Theo Hermans)의 이론을 빌어 번역의 '규범'이란 용어로 표현하고자 한다(45). 이를 위해 그 규범이 작동하는 방식, 그것이 지켜지거나 위반되는 양상을 다루고자 한다. 또한 언어적인 규범에 대해서도 논의하려 하는데, 곧 언어의 사용이나 변화 과정에 작용하는 지배적이고 주류적인 가치의 문제, 나아가서는 출발어와 도착어 사이의 세력 관계 등을 포함할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이 같은 다양한 규범에 순응하는 번역과 그것에 저항하는 번역의 사례를 찾아보고 그들의 번역 방식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규범에 순응하는 번역의 사례로는 빌헬름 제국시기의 고전번역가 울리히 폰 뮐렌도르프-빌라모비츠(Ulrich von Wilamowitz-Moellendorff, 1848-1931)의 번역을, 저항하는 사례로는 프리드리히 홀덜린(Friedrich Hölderlin, 1770-1843)의 소포클레스 번역을 들어 논의할 것이다.

II. 번역의 규범들에 대하여

테오 허만스는 규범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규범은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실체이다. 이것은 사람들의 상호 작용에 중요한 요소이며 따라서 사회화 과정의 일부가 된다. 규범은 규칙이나 관례처럼 사회적으로 규제하는 기능을 가진다. 규범은 보통 개인과 집단, 개인의 의향과 선택, 행동과 공통된 믿음, 가치, 선호 사이를 중재하기 때문이다. (47)

허만스에 따르면 개인이 번역을 포함한 문화 시스템에 참여하는 것은 관련된 규범과 모델을 받아들이고 그것에 익숙해지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때 규범은 많은 경우 내재화되어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동기를 유발하는 지시적인 힘을 통해 구성원들의 사회적, 문화적 삶에 깊이 관여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규범의 개념을 번역에 적용시키면, 규범은 번역의 목적이나 목표를 설정하는 데뿐 아니라 구체적인 번역 전략, 또는 실제 번역 과정에서 나타나기 마련인 협상, 선택, 결정의 절차에 중대한 역할을 한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번역에 작용하는 규범은 실제 언어가 전환되는 과정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번역을 둘러싼 모든 단계와 관련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사회의 공유된 가치로서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이데올로기 문제에 기초를 두고 있는 규범은 번역물의 생산과 분배를 둘러싼 복잡하고 역동적인 맥락 속에서 작동하는 것이다(허만스 65).

이때 우리는 한 시대에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읽거나 쓰기 방식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할 수 있다. 영국의 문화연구가 스투어트 홀(Stuart Hall)은 이를 ‘규범적 읽기’라고 부른다(Hall 130). 그는 「기호화와 기호해독」(“Encoding/decoding”)에서 어느 사회든 간에 텍스트를 포함한 메시지에 대한 ‘선호된 읽기’(preferred reading) 방식이 존재한다고 말한다(Hall 130). 그런데 이 선호되는 읽기 방식은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질서가 각인되어 있는 지배적인 의미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다. 곧 선호되는 읽기 방식, 지배적인 의미 혹은 가치 체계가 하나의 규범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번역가가 독자들이 선호하는 규범적 읽기 방식을 파악하고 따라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것에 적응하지 못한 번역은 독자들에게 읽히지 못하고 외면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곧 번역가는 자기 시대의 가치 체계, 지적 욕구, 감성과 취향 등을 파악하고 그것을 충족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다시 말해 번역 텍스트를 도착 문화의 규범에 합당하게 가다듬고, 이를 통해 사회적으로 용인되고 수용될 수 있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이처럼 규범적

읽기 방식에 상응하는 대표적인 번역으로 (영미권) 베스트셀러들에 대한 유려한 우리말 번역을 들 수 있다. 베스트셀러 현상은 이미 많은 독자들이 선호하는 읽기 방식, 나아가서는 지배적인 인식 체계나 언어 체계에 어느 정도 상응함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로렌스 베누티(Lawrence Venuti)는 이 같은 지배적, 규범적 번역 방식이 한 사회 내에서 외국 문학이나 문화의 이미지를 재현하고 구축하는 데 엄청난 힘을 행사한다는 점을 지적한다(120). 곧 규범적 읽기를 통해 외국 문학에 대한 스트레오타입화된 이미지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이 이미지들은 도착 문화의 사회적, 미학적 가치에 따른 것이며, 외국 문화에 대한 일종의 승인으로 작용한다고 말한다.

그런가 하면 이 같은 규범적 읽기와는 상반되는 저항적 읽기 혹은 저항적 글쓰기로서의 번역 또한 존재한다. 이것은 우리가 익숙해 있는 문화적, 언어적 규범이나 사고 체계, 주류 이데올로기 속에서 텍스트를 이해하고 옮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거스르는 번역을 말한다. 다시 말해 텍스트 내외의 갖가지 규범들을 비판적으로 재검토하고, 그런 가운데 텍스트의 의미를 새롭게 생산해 내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 경우 번역가들은 출발 텍스트 속에 담긴 고정된 의미나 그것을 둘러싼 지배적인 해석 방식을 해체하고 재구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같은 저항적 번역은 기존의 문화 담론들을 수정하고, 문화적 계층 간의 위계질서를 뛰어넘으며, 제도화된 가치와 관행들을 반복적으로 재생산하는 방식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 베누티의 견해이다(322). 이로써 지배적인 규범에 의문을 제기하고, 그것의 견고함을 흔들고 마침내는 전복시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바바라 존슨(Barbara Johnson)은 중요한 번역 텍스트를 다시 읽을 것을 제안한다. 이는 번역이 이루어진 시기를 지배하던 규범에 따라 억압되거나 생략된 부분들, 혹은 서로 모순되는 부분들을 새롭게 인식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재인용. 바스넷 42).

규범에 순응하는 대표적인 번역이 베스트셀러 번역이라면, 그것에 저항하는 번역의 한 예로 페미니즘 계열의 번역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수전 드 로트비니에르-하우드(Susanne de Lotbinière-Harwood)와 같은 페미니즘 번역가는 번역을 일종의 정치적 행위로 파악한다. 그녀는 “나의 번역은 언어가 여성을 위해 말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치적 행위이다. 그래서 번역에 한 나의 서명은 이 번역이 언어로 여성을 보이도록 만들기 위해 페미니스트의 모든 가능한 전략을 사용했음을 의미한다. 언어로 여성을 보이게 만든다는 것은 실제 세계에서 여성이 보이고 들리도록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qtd. in Flotow 131)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규범에 대한 저항적 읽기와 쓰기로서의 번역은 주류 문화에서 배제된 채 주목받지 못했던 텍스트나 텍스트 속에서 명명되지 않거나 드러나지 않은 목소리를 드러내는 행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곧 역사적으로 잊힌 텍스트나 그 속에 담긴 목소리들을 찾아내고 새롭게 평가하는 행위인 것이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로만 알루아레즈(Román Álvarez)와 카르멘 아프리카 비달(Carmen-África Vidal)은 번역 텍스트 속에 번역 규범, 혹은 문화 권력이 어떤 식으로 자리 잡고 있는지를 분석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22). 곧 번역 주체가 무엇을 옮기든지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옮기지 않는지, 또 어떤 방식으로 옮기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이전의 번역가가 지배적 규범에 따라 추가하거나 생략했던 것, 선택한 단어들, 그것들을 배치하는 방식을 밝혀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번역에서의 규범은 일차적으로는 자신의 번역물이 읽히고 유통되기 위해 번역가가 좇아야 하는 공공의 약속과 규정, 규칙들을 의미한다. 그것은 언어 체계, 가치 체계나 인식 체계 등 중층적인 차원으로 나누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 규칙과 규정을 습득하는 것은 번역 교육에서나 훈련 과정에서 필수적인데, 이를 바탕으로 번역된 텍스트를 둘러싼 독자와의 소통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상이한 규범들은 번역가의 개별적 해

석이 지나치게 자의적이거나 주관적으로 흐를 위험성을 막아주고, 그것을 일정한 맥락 속에서 파악하는 장치로 작동한다. 나아가 실제 독자들을 위한 가독성을 높여준다.

다른 한 편으로 규범은 실제 번역 행위에 있어 일종의 지배 권력으로 작동할 수 있다. 이는 우선 번역가의 독자적인 해석이나 개성적인 글쓰기를 억압하거나 부정하는 방식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뿐 아니라 자국의 문화와 상충되는 타 문화의 이질적 요소를 검열하는 심급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 결과 지배적인 규범에서 벗어나는 것들은 번역 과정에서 걸러지고 삭제되거나 일정 부분 왜곡, 변형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규범이 지닌 지시적이고 규제적인 힘은 번역가의 독자적인 선택이나 타 문화의 이질적 요소를 억압하는 기제로 작동하게 되는 것이다.

번역에 영향을 미치는 규범이 가지는 이 같은 상반되는 효과를 논의하는 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가 아니라 복수적이며, 종종 경쟁적인 상태나 상충될 가능성을 가진다는 것이다. 이 복잡하고 중첩적인, 혹은 서로 모순적인 규범들이 서로 경쟁하면서 오히려 새로운 읽기 방식이나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주기도 한다. 예컨대 테자스비니 니란자나(Tejaswini Niranjana)는 번역은 종교적, 인종적, 성적, 경제적 규범에 의해 중복 결정된다고 말한다(재인용. 허만스 71). 따라서 중첩되는 규범 중 어떤 것을 선호하고 그것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지, 곧 순응하는 혹은 저항하는 입장을 취할지는 번역가 자신이 선택할 몫으로 남는다.

Ⅲ. 언어적 규범의 문제

번역과 관련된 여러 규범들 중에서 언어적 규범에 대해 별도로 논의해 보자. 바르트(Roland Barthes)는 랑그 자체를 파시스트적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457). 이것은 언어가 그 자체로 이미 전체주의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바르트의 이 같은 주장은 언어 자체란 평등하고 중

립적인 의사소통의 도구라고 보는 언어 기능주의적 사고에 반기를 드는 것이다.

실제로 언어 규칙들은 특정 언어 공동체에서 널리 통용되고 어릴 때부터 습득되기 때문에 인위적이라기보다는 자연적으로 주어지고 중립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언어 속에 내포된 당연시되는 의미들은 언어가 투명하거나 실제로 자연스럽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홀은 언어는 관습의 산물이며, 언어 규칙이나 의미 규칙은 특정 담론이 관습적으로 받아들여지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고 말한다(홀 294). 곧 우리는 언어의 개입과 지지를 통해 사물이나 담론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인식한다는 것이다.

또한 동일한 언어 체계 속에서도 어떤 의미들은 당연한 것으로 공공연하게 통용되는 반면, 다른 것들은 지엽적이거나 부당한 것으로 주변으로 밀려난다. 이때 지배적인 의미는 종종 이미 굳어져서 의문의 여지없이 사용되는 상식적 표현이나 관용어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들의 의미는 이미 고정되어 있어 누구나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그러나 이 같은 상식적 표현이나 관용어는 지배적 가치나 헤게모니의 유지에 기여한다는 것이 홀의 주장이다(홀 268). 흔히 사용되는 속담이나 사자성어 등도 그것에 속한다.

그렇다면 번역가는 일상적이고 상식적인 언어, 관용적 언어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이 같은 질문의 배경에는 일반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상식적이고 일상적인 언어가 최상의 번역어가 될 수 없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다시 말해 규범화된 언어를 별다른 의식 없이 사용하는 과정은 번역가에게 자신만의 독자적이고 개성적인 언어를 구사할 가능성을 배제한다. 일상어를 선호하는 번역은 가장 대중화된 의사소통을 지향하는 것이며, 이때 관용적 표현은 굳어지고 완성된 언어의 결정체인 까닭에 더 이상 언어의 변화나 운동을 수용하기 어렵다.

언어적 규범과 관련하여, 출발 언어와 도착 언어가 국제 사회에서 동일

한 위상을 지니고 있지 않는다는 것 또한 자명하다. 곧 각각의 언어들은 중립적이고 평등한 관계가 아닌 대단히 불균형적인 권력 관계 속에 놓여 있다는 말이다. 영어를 비롯한 특정 서구 언어는 제3세계 언어에 비해 월등하게 우월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이처럼 번역은 언어 간의 지배와 종속의 관계에 깊이 연루되어 있으며, 이 관계를 유지할 수도 있고 반대로 무너뜨릴 수도 있는 “문화적 실천”(베누티 271)이다.

그렇다면 번역가는 출발 언어와 도착 언어의 권력 관계 사이에서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가? 각 사회의 언어는 모두 자신만의 가치, 표준, 분류 체계를 가진다. 이것들은 목표 언어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데, 이 같은 차이가 번역에서 다양한 변수와 어려움을 가져온다. 이때 번역가가 차이가 나는 요소들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가가 중요하다. 곧 주류 혹은 지배 언어와 비주류 언어 혹은 소수 언어 사이에서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는 것이다. 소수 언어가 가지는 그들만의 가치와 표준, 분류 방식이 주류 언어와는 달리 미분화되어 있다든가 체계적이지 못하다 하더라도 그들의 고유한 양상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 이들 간의 차이를 유지하고 수용하느냐 혹은 다른 것을 갖게 만드느냐에 따라 도착어의 양상은 달라질 수 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차이를 어느 정도 허용할지, 어느 정도 동일화시킬지의 한계를 설정하는 것이다.

번역물이 생산되고 읽혀지기 위해서는 언어 체계, 문법 규칙을 따라야 할 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관용적인 표현 또한 이해하고 구사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에 익숙지 못한 번역은 가독성에 장애를 일으키고 번역의 일차적 목표인 의미전달이나 의사소통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누구나 사용하는 상식적이고 관용적인 언어, 전형적인 표현들은 언어의 변화나 발전을 유도할 수 없다는 것 또한 사실이다. 실제로 언어의 변천 중 많은 부분은 번역을 통해 이루어졌고, 글쓰기 방식이나 문체 역시 상당 부분 번역을 통해 이루어졌다. 그렇다면 주류 언어의 굳어진 표현이나 규범화된 사용에 저항하는 번역이 오히려 새로운 언어를 창출할 가능성이 높

다. 이로써 모국어의 변화를 유도하고, 개성적인 문체를 만들어낼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새로운 글쓰기의 전범을 창출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이처럼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언어와 그것이 담고 있는 일반화된 가치 혹은 지배적 가치에 순응하는 번역과 그것에 저항하거나 비판적으로 개입하는 번역은 도착 텍스트에서 대단히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것이다.

IV. 사례 분석: 규범에 순응하는 번역과 저항하는 번역

번역가들은 번역 과정에서 지배적인 규범에 순응하기도 하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기도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을 전복하기도 한다. 그것은 번역가의 의도적인 행위일 수도 있고, 자신이 의식하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그런 양상으로 이어진 경우도 있을 것이다. 아래에서는 규범에 순응하는 번역과 그것에 저항하고 그것을 깨뜨리는 번역, 다시 말해 지배적 가치를 유지하려는 번역과 소수적이고 이질적 가치를 해방하려는 번역이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예를 들어 보고자 한다.

1. 규범에 순응하는 번역

한 시대의 지배적 규범에 순응하고 나아가 그것을 강화하는 번역의 예로 19세기 말 독일의 고전번역가 울리히 폰 빌라모비츠-뮐렌도르프의 번역을 들어 논의하기로 한다. 빌라모비츠-뮐렌도르프는 그라이프스발트와 괴팅엔 대학 등에서 고대 그리스어를 가르치고, 1867년에는 베를린 대학에서 교수직을 얻었던 당대의 대표적인 고전학자였다. 그는 그리스 비극, 호메로스, 헤시오드, 핀다로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에 관한 많은 저서를 남겼고,¹ 비극(『그리스 비극』 총 4권, 1899-1923)과 희극, 플라톤과

1. 1902년에는 *Inscriptiones Graecae*의 편집책임자가 되었고, 또한 *Philologische Untersuchungen (Philological Investigations 1880-1925)* 시리즈의 편집인을 역임하기도 했다.

초기 그리스 서정시, 헬레니즘 문학의 편집, 주석, 번역 작업을 수행했다.²

그렇다면 빌라모비츠-뮐렌도르프 고전어 번역의 어떤 측면이 지배적인 규범을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 왔을까? 그는 무엇보다 이전 세대, 특히 낭만주의자들의 번역을 위한 노력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모두 거부했다. 개작 혹은 번안이 주를 이루었던 18세기의 계몽주의적 번역 경향에 반대해 새로운 번역 담론과 번역 방식을 시도한 슐레겔, 슐라이어마허와 훔볼트, 포츠와 같은 낭만주의자들의 노력을 그는 송두리째 무시하고 오히려 이전의 경향으로 되돌아가려고 했다.

예를 들면 그는 그리스의 운문 형식을 무운시(Blankvers)로 옮겼다. 이것은 그가 문학 번역, 특히 운문의 번역에서 내용과 형식이 분리되는 것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의미역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운율을 둘러싼 ‘형식의 번역’이라는 해묵은 논쟁을 재연하기보다는 간단히 내용 전달이 우선한다고 보았던 것이다.

포츠나 포츠보다 나은 인물들, 예컨대 훔볼트가 시도한 것처럼, 원전의 운율을 유지하고자 헛되게 노력한다면 스스로 올바른 길을 가르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번역은, 심지어는 슐라이어마허의 플라톤까지도 오늘날에는 완전히 죽어 버렸다. 창조적인 시인이 고대 작품을 취하여 자신의 정신으로 모방해서 재창조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 그것은 그 자체로 정당한 것이고, 심지어는 더 위대한 것이지만, 번역은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번역은 단지 고대 시인이 마치 자기 시대에 말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받아들여지고, 그렇게 직접적으로 이해되도록 말을 하게 만들어

2. 그는 그리스 비극, 호메로스, 헤시오드, 핀다로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에 관한 많은 저서를 남겼고, 비극과 희극, 플라톤과 초기 그리스 서정시와 헬레니즘 문학 분야의 편집, 주석, 번역 작업을 수행했다. 이를 통해 그는 당시의 고전문헌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이 학문의 성격을 규정하는 역할을 했다. 그뿐 아니라 고고학, 파피루스학, 비교언어학, 금석학, 고대사 등의 발전이 그에게 빛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야 하기 때문이다. 옛 시인은 말해야 하고, 우리의 입을 통해 말해야 한다. (Wilamowitz-Moellendorff, "Die Kunst" 143)

이 같은 입장을 견지한 채 빌라모비츠는 그리스 신화적 요소나 고대의 신들에 대한 그리스인들의 믿음을 기독교 사상과 19세기 시민사상으로 옮겼고, 그리스어를 빌헬름 제국 시대의 관료주의 언어로 바꾸었다. 예컨대 아이של로스가 이피게니아를 제물로 바치는 ‘염소’(Ziege)로 비유한 것을 그는 기독교적인 의미의 ‘어린 양’(Lamm)으로, 신들(Götter)을 부르는 (rufen) 행위를 기도(beten)로, 나아가서는 이피게니아를 식탁에서 ‘시편’을 암송하는 경건한 처녀로 옮긴다.³ 여기서 그는 출발 텍스트가 가지는 함창의 절이나 행, 강세 등을 고려하지 않고, 그 대신 당시의 분명한 독일어 문장으로, 가장 일반적인 어순에 따라 경구조의 일상어로 옮기는데 주력한다. 이는 말하자면 자기 시대의 보편적 언어와 주류적인 (기독교) 문화를 중시하고, 출발 텍스트가 가지고 있는 이질적 요소들을 토착화(Einbürgerung) 혹은 독일화(Verdeutschung)하는데 주력하는 것이다. 여기서 많은 이질적 요소들의 변형과 왜곡이 일어나는 것은 불가피하다.

또한 언어가 생성과 변화의 과정을 겪는다는 언어관은 빌라모비츠에게는 낯설고 불확실한 것을 의미해서, 이 같은 불확실성은 제거되어야 했다. 이를 통해 빌라모비츠의 번역은 “마르지 않고 배우지 못한 채 위대한 예술의 맑은 생명수”(unverdorben und meinethalben ungebildet nach dem reinen Lebenswasser einer großen Kunst)(Wilamowitz-Moellendorff, *Geschichte* 37)에 목말라 하는 일반 독자들에게 아무런 전제 조건 없이,

3. An frohen Festen pries beim Tischgebet
der Jungfrau reiner Mund
des Vaters Glück
mit kindlich liebevollem Psalm,

(Zitiert nach Friedmar Apel, *Sprachbewegung. Eine historisch-poetologische Untersuchung zum Problem des Übersetzens*, Heidelberg 1982, S. 161.)

마치 독일어 텍스트를 읽듯이 그 속에서 그리스적인 것을 경험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포 시를 비롯한 그리스 문학을 수용하는 과정에서도 그는 당시의 지배적 가치인 민족주의, 인종주의적 이념을 숨기지 않는다. 빌라모비츠의 이 같은 입장은 프리드리히 고틀립 벨커(Friedrich Gottlieb Welcker 1784-1868)⁴가 번역한 사포와 관련해서 드러난다. 벨커는 독일 민족주의가 발흥하던 이 시대에 사포를 번역함에 있어 한편으로는 군국주의와 애국주의를, 다른 한편으로는 여성의 정숙함을 지배적인 가치로 삼았다. 이에 따라 그는 역사적으로 사포에게 부가된 레즈비언이란 평가를 거부했다. 벨커가 사포의 동성애를 부정하려는 것은 그러나 실제로는 사포를 애국심으로 충만한 여성으로 만들려는 의도와 관련된다. 그는 독일의 민족주의적 프로그램을 위해 그리스 여성 사포에게 독일적 가치를 부여하려 했던 것이다.

사포의 시 번역과 관련하여 빌라모비츠는 이 같은 벨커의 해석을 지지했다. 곧 빌라모비츠 역시 사포를 레즈비언으로 보는 전통적인 견해에서 그녀를 해방시키고자 했으며,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고대 여성 시인의 모습 대신 정숙한 아내이자 어머니로서의 모습을 부각시키려 했다(Wilamowitz-Moellendorff, *Sappho* 17). 사포의 동성애를 부정하는 빌라모비츠에게서 부상하는 민족주의적 가치, 민족주의라는 이데올로기를 확인하게 되는데, 빌라모비츠의 동성애 혐오증은 독일의 문화적 우월성에 대한 신념과 관련된다.

빌라모비츠는 또한 언어 운동(Sprachbewegung)과 관련해서는 독일어란 이미 충분한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고 여겼고, 따라서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규범으로 삼았다. 그에게서 “독일어로 번역하는 것은 우리의 위

4. 빌헬름 폰 훔볼트의 친구였던 벨커는 훔볼트의 추천으로 1809년 기센 대학의 그리스 문학과 고고학 교수가 되었다. 그는 여기서 독일에서 최초로 고고학과를 설치했고, 1812년에는 고전 문헌학 세미나를 만들었다.

대한 시인들의 언어와 문체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In Deutsche übersetzen heißt in Sprache und Stil unserer großen Dichter übersetzen) (Wilamowitz-Moellendorff, “Die Kunst” 22; Störig 139). 그렇다면 번역에 관한 그의 두 가지 중요한 입장은 그리스 원전을 자기 시대의 독자들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옮겨야 한다는 것과 번역에서 시적 형태는 원작의 그것과 일치할 수 없기 때문에 의미상으로 옮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이처럼 빌라모비츠의 번역에는 탁월한 고전 지식과 민족주의적 가치를 고수하려는 의지가 뒤섞여 나타난다. 그러나 그는 자기 시대의 지배적 가치를 위해 외국 텍스트의 언어적, 문화적 차이를 제거해 버렸다. 이 같은 빌라모비츠의 번역은 동시대인들에게 각광을 받았는데, 무엇보다 고전학의 대상을 비전공자들에게까지 폭넓게 소개하고 인문주의적인 유산을 민주화한다는 의미에서였다.⁵

빌라모비츠의 시민적이고 반이상주의적 번역 이념은 1830년부터 1890년에 이르는 독특한 시기, 곧 경제, 기술, 과학의 발달과 더불어 문화적, 예술적 후퇴가 점점 더 심화되어 가던 빌헬름 제국시기의 민족주의적, 제국주의적 문화적 정체성을 구축하는데 일조한다. 시대의 근본 문제를 유연한 사고의 힘으로 해결하고자 했던 낭만주의자들의 노력은 중단되었고, 이 같은 변화는 특히 번역을 통한 외국문학의 수용에서 단적으로 나타났던 것이다. 빌헬름 제국 시대의 번역 글쓰기는 창백하고 공허한 교양문체

5. 일반인들로부터는 찬사와 사랑을 받았던 그의 번역 방식은 지식인들에게는 많은 저항을 불러 일으켰는데, 특히 스테판 게오르게(Stefan George)를 중심으로 하는 게오르게 학파는 고전을 대중화하려는 빌라모비츠의 경향에 분개했다. 그들은 빌라모비츠의 번역 방식이 진부하고 구태의연할 뿐 아니라 문체의 정확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보았다. 빌라모비츠의 플라톤 번역과 해설에 대해 보르하르트는 “위대한 기술자의 무신경”(Instinktlosigkeit dieses großen Technikers)이라고 불렀고, 프리드리히 군돌프(Friedrich Gundolf)는 심지어 “하녀를 위한 플라톤”이란 수식어를 붙였다. 폭넓은 독자들을 위한 빌라모비츠의 고전비극 번역은 그의 사후에는 더 이상 출판되지 않았다(Apel 157).

를 규범으로 한다. 이에 대해 아펠(Frimar Apel)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밋밋하고 균등한 운문, 중립적인 문장형태, 일반적으로 이해될 수 있고 전반적으로 통용되는 단어의 선택, 분명한 생각을 분명하게 전달하기, 확고한 산문적인 이야기톤, 이것이야말로 이 시민의 시대가 보여주는 번역 글쓰기의 특징인 것이다. 그것은 모든 시대와 나라에서 통용된다고 믿는 형식과 소재의 규범에 순응하는 절충주의이지만, 실제로는 공허한 교양 문체를 옮겨놓은 것이다. (Apel 157)

이렇게 본다면 빌라모비츠의 역사주의적이고 대중주의적 성향은 분명 당시의 지배적 규범을 따르는 번역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빌라모비츠의 고전 번역은 인문주의적 문화의 대상을 절충하고 대중화시켜 지배적 가치를 공고히 하고, 자기 시대의 문화적, 언어적 규범에 적합하지 않는 낯선 것들을 과감히 몰아낸 결과인 것이다. 그 결과 빌헬름 제국시기의 민족문화 개념은 훨씬 좁아졌을 뿐 아니라 정치적, 이데올로기적인 성격을 띠게 된다.

빌라모비츠의 번역은 적극적으로 자신의 문화를 옹호하고자 하며, 지배적인 문화적, 정치적 규범에 순응하고 강화하는 태도를 보여준다. 그러나 이를 통해 민족 언어와 민족감정을 찾고자 했던 이전 세대의 순수한 의도는 점차 제국주의적 성향으로 변질되어 갔다. 언어의 유동성과 이질적인 것을 향해 열려 있던 감정은 경직되고 이데올로기적인 표현의 수단으로 굳어져 가는 것이다.

2. 규범에 저항하는 번역

위의 사례와는 반대로 이번에는 당대의 규범에 저항했던 번역의 예를 들어보자. 이를 위해 초기 낭만주의자 그룹에 속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동시대인으로 중요한 번역 작품을 남긴 작가로 프리드리히 뢰달린의 소포클레스 번역을 살펴본다. 뢰달린 역시 그리스 문학과 라틴 문학을 독일어

로 옮긴 번역가였다. 엄청난 언어적 밀도와 이미지와 상징으로 가득 찬 그의 시가 보여주는 특징들은 많은 부분 그 자신이 했던 번역 작업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빌라모비츠와는 달리 그가 송가나 찬가와 같은 그리스 시 형식을 자신의 시에 사용한 것은 단순히 전통적 시 형식을 받아들인 수동적인 차원이라기보다는 고대 정신과의 내적인 결합의 표현인 동시에 “한때 지상에 존재했고 또다시 돌아오리라는 징표를”(Zeichen, daß einst er da gewesen und wieder/ käme)(Hölderlin 237) 남겨두고 떠난 신들을 다시 현재 속으로 불러내기 위해서였다.

훔덜린의 번역 방식은 한 가지 유형으로 일관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자신의 문학 활동 전반을 동반하고 있는 훔덜린의 번역 작업은 그 목적과 목표에 있어 몇 단계의 변천을 보여준다.⁶ 이 중에서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 왕』(König Ödipus)과 『안티고네』(Antigone)에 대한 훔덜린의 번역은 1804년 프랑크푸르트에서 프리드리히 빌만(Friedrich Wilmann)에 의해 출판되었다. 훔덜린의 이 번역에 대해 프리드리히 쉴러와 포쓰(Johann Heinrich Voss)는 냉담한 태도를 취했다. 당시의 대표적인 문인이자 번역가인 이들의 평가는 동시대인들에게도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쳤다. 여전히 ‘독일화’(Verdeutschung)가 번역의 주된 규범으로 작동했던 당시에 훔덜린의 후기 번역은 직후에 나타난 그의 정신분열증의 전

6. 호메로스에서부터 소포클레스의 『안티고네』 중 합창 「힘센 것들은 많기도 하도다」가 번역된 1799년까지 번역은 전례적인 방식에 따라, 형식에 얽매이지 않은 채 의미를 재현하는 이른바 ‘의미번역’에 머물고 있다면, 1800년부터 1801년 말까지 이루어진 핀다로스 번역은 언어실험 혹은 형식실험을 위한 새로운 시도라 부를 수 있다. 2,000행에 가까운 그의 대 핀다로스 번역(die große Pindar-Übertragung)은 청각적 요소를 중시하며, 형식을 그대로 추적하고, 개별 어휘나 문장의 배열을 원문 그대로 유지하려는 노력을 보여준다. 철저한 축어역으로 이루어진 이 번역은 문장구성에 있어서 독일어가 수용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 말하자면 언어적 규범, 곧 독일어 문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독일어의 나아가 프랑스 보르도로부터 귀향하여 1802년과 1803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매달렸던 소포클레스의 비극 『오이디푸스 왕』과 『안티고네』, 그리고 핀다로스 단편(斷片)의 번역은 해석을 동반한 마지막 단계의 번역이다(장영태 50-85).

조로 해석되기도 했다.

그렇다면 『안티고네』와 『오이디푸스 왕』에 대한 훔덜린의 번역에서 무엇이 문제가 되었을까? 훔덜린은 이 번역에서 그리스 정신의 복원을 중요한 원칙으로 삼았다. 이를 위해 그는 문헌학적 방법을 동원하여 독일어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그리스어의 특징들을 찾아내려 했고, 그리스어의 각 단어가 가지는 의미와 소리, 어순 등을 신중히 고려했다.⁷ 그는 그리스 단어의 어원을 파악하고, 그것이 가지는 예스러움을 살리기 위해 슈바벤 사투리나 루터 독일어를 사용하기도 했다(Berman 167). 그는 번역에 이어 긴 주석을 덧붙였는데, 그의 주석은 자신의 번역에 관해서 뿐 아니라 원전의 이해를 위해서도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준다. 이런 의미에서 그의 번역은 주석을 곁들인 해석적 번역이라 부를 수 있는데, 이것은 동시에 원전에 대한 해석(interpretation)으로 기능한다. 이 같은 그의 번역 전략은 당시에 우세하던 자국화하는 방식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그가 자기 시대의 지배적 규범에 동조하지 않은 것은 그리스 문화 자체에 대한 이해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번역을 통해 드러난 훔덜린의 그리스 상은 동시대인들의 그리스 상과는 명백히 차이가 난다. 그것은 빙켈만의 명제 “고상한 단순함과 조용한 위대함”(eine edle Einfalt und eine stille Größe)으로 대변되는 고전주의적 미의 전범으로서의 고대 정신도, 낭만주의자들이 열망했던 ‘낭만적 회귀의지’(romantisches Zülruckwollen)의 대상도 아니다. 훔덜린에게 그리스 신들은 이상화되고, 형상화된 고전적 조각상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고 실재하는 존재이다. 그 존재들은 인간의 삶에 놀라운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고, 동시에 사람들의 두려움을 불러내기도 한다(Heidegger 67).

7. 이에 따라 그는 “mit der Kraft der Tugend” 대신 “Füße Tugend”라고 쓴다든가, 출발 텍스트를 정확히 옮기려는 의지에서 독일어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전치사나 접속사를 생략하기도 했다.

오이디푸스에 관한 주석에서도 암시했듯 비극적 표현은 전적으로 인간과 하나인, 직접적인 신(사도의 신은 보다 간접적이고, 최고의 정신 속에 있는 최고의 이성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한한 열광이 끊임없이, 다시 말해 대립 속에서, 의식을 끌어올리는 의식 속에서, 성스럽게 스스로를 구분하면서, 파악되고, 신이 죽음의 형상을 하고 나타나는데 근거한다.... 그리스 비극의 언어는 치명적으로 실제적인데, 그 말에 사로잡히는 육신은 실제로 죽기 때문이다. (Hölderlin, *Sämtliche* 269)

이런 점에서 본다면 횡델린은 소포클레스 번역에서 죽은 그리스 문자를 일반적인 독일어로 옮기는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인간의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운명적인 힘을 가진 실체로 일깨워내고자 한다. 이처럼 그의 번역을 통해 드러나는 것은 인간이 신으로부터 멀어지고 자연과 단절된 채, 모든 것을 이성적으로 규정하는 독일인의 종교적 표상이나 감각과는 분명 다른 것이다. 독일인들의 지배적인 종교적 표상과는 달리 횡델린이 구현한 그리스 신들과 이 신들의 언어는 치명적일 정도로 직접적인 효과를 지니는 것이다.

이처럼 횡델린은 당시 독일 독자에게는 전혀 익숙하지 않고 생소한 그리스 상을 통해 그들로 하여금 직접 고대 그리스 세계를 대면하게 하고, 양자 사이의 근본적인 차이를 드러냄으로써 궁극적으로 독일적인 것의 특수성을 인식시킨다. 독일 문화의 고유하고 독자적인 요소들, 아직 명확히 규정되지 않고 모호하게 남아있는 요소들은 오로지 낯선 것과 마주함으로써만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하이데거는 횡델린의 번역 원칙에 대해 낯선 작품을 이해하게 만든다는 것은 하나의 시나 사유를 다른 문화의 지평 속으로 옮겨놓는 것을 말하며, 원래 가지고 있던 습관적이거나 맹목적인 생각을 무너뜨리고 본래의 모습을 드러내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한 바 있다(Heidegger 76). 횡델린이 번역을 통해 되살려낸 그리스극의 운명적인 비극성은 동시대인들이 표

상했던 이상화된 그리스 상과는 명백히 차이가 나는데, 이런 점에서 그는 그리스 문화의 비고전주의적 특징들을 인식했던 최초의 인물이다.

이렇게 본다면 훔덜린의 소포클레스 번역은 자기 시대에 규범으로 작용하는 지배적 가치를 좇기보다는 그것에 저항하는 번역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지배적 가치에 따라 자국의 독자들을 고려한 독일화된 그리스 상이 아니라 그리스 본연의 상을 회복시키고 재생시키고자 하는 시도이다. 동시에 이질성을 제거하거나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유지하는 번역, 그 낯설음을 현재화시키고 되살려내는 번역인 것이다.

V. 맺는 말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좁은 의미의 번역 규범은 번역가가 필수적으로 습득해야 할 다양한 규칙과 관례들을 의미한다. 자신의 번역물이 한 사회 내에서 유통되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번역가는 이 규범들을 수용하고 익히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은 당대의 사람들이 선호하는 읽기 방식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그 속에는 가치 체계와 인식 체계, 감정의 구조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같은 규범의 그물망 속에는 정치적, 문화적, 언어적 이데올로기가 내재해 있다. 이때 규범들은 단독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고 상충되기도 하면서 권력적 심급으로 작동한다.

번역가가 지배적인 규범에 지나치게 의존할 때, 그의 번역은 자국의 지배적인 가치를 통해 이질적인 요소들을 배제시키고 최종적으로는 자국의 문화나 언어를 고수하고 강화하는 효과를 낳는다. 곧 규범들에 순응하는 번역은 자국의 가치에 합당하지 않는 논의들이나 모순점들을 배제하고, 이를 통해 특정한 외국 문화에 대한 스트레오타입을 형성하고 강화한다. 이에 대한 예를 빌라모비츠-뮐렌도르프의 고전어 번역에서 살펴보았다. 빌라모비츠는 번역을 통해 자기 시대의 민족주의적, 인종주의적 이념을 강화하는 것이다.

실제로 한 사회에서 유통되는 대부분의 번역은 규범에 순응하지만, 그것에 저항하는 사례 또한 적지 않다. 규범에 저항하는 번역은 기존의 가치와 상충하고 때로는 그것을 부정하기도 하는데, 이 글에서는 이에 대한 예로 훔덜린의 소포클레스 번역을 살펴보았다. 훔덜린의 경우에는 번역을 통해 고대 그리스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낸다. 그렇다면 규범에 저항하는 번역은 한 국가 내에서 다른 나라 혹은 다른 문화의 스트레오타입화된 이미지를 수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번역은 원래의 텍스트와 동일한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기보다는 다시쓰기(rewriting)의 복잡한 과정이다(Lefevere 10). 이 다시쓰기의 과정은 번역가가 지배적 가치나 지배적 규범에 대해 가지는 입장 속에서 이루어진다. 이처럼 오늘날의 번역 연구는 번역을 통해 특정 문화에 대한 이미지나 지식이 생산되는 과정, 나아가 그것이 전달되고 재배치되며, 새롭게 이해되는 맥락을 밝혀내는데 역점을 둔다.

이에 대해 베누티는 번역이 낳는 중요한 효과 중 하나는 도착 문화의 사회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베누티 121). 곧 번역은 한 사회의 문화적 정체성의 일관성과 동질성을 유지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에 대한 저항과 혁신, 변화를 시도한다는 것이다. 심지어 번역은 한 사회의 제도를 위협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번역이 이 제도들을 지탱하고 있는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기반의 불안정성을 드러내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한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날 번역가의 역할은 두 개의 언어를 구사하는 기능인으로서의 역할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부각되고, 번역은 일종의 정치적 행위로 파악될 수 있다.

Works Cited

- Álvarez, Román M. [알루아레즈, 로만 M.], and Carmen Africa Vidal [카르멘 아프리카 비달], eds. *Beonyeok, Gwonryeok, Jeonbok* [Translation, Power, Subversion, 번역, 권력, 전복]. Trans. Yun Il-Hwan [윤일환]. Seoul [서울]: Dongin [동인], 2007. Print.
- Apel, Friedmar. *Sprachbewegung: Eine historisch-poetologische Untersuchung zum Problem des Übersetzens*. Heidelberg: Winter, 1982. Print.
- Barthes, Roland. *A Barthes Reader*. New York: Noonday, 1983. Print.
- Basnett, Susan [바스넷, 수잔]. “Yakja Hogeun Gangja: Beonyeokgaui Yeokhal Jaegomtohagi [The Meek or the Mighty: Reappraising the Role of the Translator, 약자 혹은 강자: 번역가의 역할 재검토하기.]” *Beonyeok, Gwonryeok, Jeonbok* [Translation, Power, Subversion, 번역, 권력, 전복]. Ed. Roman M. Alvarez [로만 M. 알루아레즈], and Carmen Africa Vidal [카르멘 아프리카 비달]. Trans. Yun Il-Hwan [윤일환]. Seoul [서울]: Dongin [동인], 2007. 10-24. Print.
- Bergman, Antoine. *The Experience of the Foreign: Culture and Translation in Romantic Germany*. Albany, New York: SUNY P, 1992. Print.
- Chang, Yeong-Tae [장영태]. “Hölderlinui Sophocles Bigeuk ‘Antogone’ e Daehan Haeseokgwa Beonyeok [Hölderlin’s Sophocles Tragedy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on ‘Antigone’, 횡델린의 소포클레스 비극 *Antigone*에 대한 해석과 번역.]” *Dokilmunhak* [German Literature, 독일문학] 67 (1998): 50-85. Print.
- Flotow, Luise von. *Translation and Gender: Translating in the Era of Feminism*. Manchester: St. Jerome, 1997. Print.
- Foucault, Michel. *Archäologie des Wissens* [L’archéologie du savoir]. Trans. Ulrich Köppen, Frankfurt: Suhrkamp, 1986. Print.
- Hall, Stuart. “Encoding/decoding.” *Culture, Media, Language*. London: Hutchinson, 1980. 128-38. Print.
- Hall, Stuart [홀, 스투어트]. *Stuart Hallui Munhwa Iron* [Cultural Studies, 스투어트 홀의 문화 이론]. Trans. Yim Yeong-Ho [임영호]. Seoul [서울]: Hannarae [한나래], 1996. Print.
- Heidegger, Martin. *Hölderlins Hymne Der Ister*. 2nd ed. Frankfurt a. M.: Vittorio Klostermann, 1993. Print.
- Hermans, Theo [허만스, 테오]. “Gyubeom Geurigo Beonyeogui Gyeoljeong [Norms and the Determination of Translation, 규범 그리고 번역의 결

- 정.” *Beonyeok, Gwonryeok, Jeonbok* [Translation, Power, Subversion, 번역, 권력, 전복]. Ed. Román M. Álvarez [로만 M. 알루아레즈] and Carmen Africa Vidal [카르멘 아프리카 비달]. Trans. Yun Il-Hwan [윤일환]. Seoul [서울]: Dongin [동인], 2007. 25-51. Print.
- Hölderlin, Friedrich. *Gedichte*. Stuttgart: Reclam, 2000. Print.
- _____. *Sämtliche Werke*. Ed. Friedlich Beissener. Vol. 5. Stuttgart: Kohlhammer, 1952. Print.
- Lefevere, André, ed. *Translation, History, Culture: A Sourcebook*. London: Routledge, 1992. Print.
- Munday, Jeremy [먼데이, 제레미]. *Beonyeokhak Ipmun* [Introducing Translation Studies, 번역학 입문]. Trans. Jeong Yeon-II [정연일], and Nam Won-Jun [남원준]. Seoul [서울]: Hang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Press Center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06. Print.
- Proctor, James [프록터, 제임스]. *Jigeum Stuart Hall* [Stuart Hall, 지금 스투어트 홀]. Trans. Son Yu-Gyeong [손유경]. Seoul [서울]: LP Book [엘피], 2006. Print.
- Störig, Hans Joachim, ed. *Das Problem des Übersetzens*. Darmstadt: 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 1973. Print.
- Venuti, Lawrence [베누티, 로렌스]. *Beonyeokui Yunri, Chaiui Mihakeul Wihayeo* [The Scandals of Translation, 번역의 윤리, 차이의 미학을 위하여]. Trans. Yim Ho-Gyeong [임호경]. Seoul [서울]: Openbooks [열린책들], 2006. Print.
- Wilamowitz-Moellendorff, Ulrich von. “Die Kunst der Übersetzung.” (1924) *Das Problem des Übersetzens*. Ed. Hans Joachim Störig. Darmstadt: 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 1973. 139-43. Print.
- _____. *Geschichte der Philologie*. Leipzig: B.G. Teubner, 1921. Print.
- _____. *Sappo und Simonides, Untersuchungen über griechische Lyrik* (1913) Berlin: Georg Olms Verlag AG, 1985. Print.

Abstract

Norms of Translation: Translation for or against Norms

Mi-Hyun AHN (Mokpo National University)

Norms of translation include various rules and customs that translators must necessarily acquire. Translators must learn these norms if they wish their products to be recognized and circulated in a certain society. Such products contain the preferred value and knowledge system of a certain period, such as the structure of emotion, among other things. In this network of norms inhere political, cultural, and verbal ideologies. Norms don't operate separately, but build a network, even while they connect with or contradict each other. When translators depend excessively on dominant norms, their translations have the effect of ultimately excluding exotic factors and strengthening their own culture and language-system. We have examined such an example in Wilamowitz-Moellendorff's translations of ancient Greek texts: He replaces the Greek mythologies and gods by the Christianity of his time and place, and in this way reveals the national or imperial ideology of his era. Even though most translators tend to follow the ruling norms, a few translators resist these norms. We have seen such resistance in Hölderlin's translations of Sophocles, for Hölderlin mediates new images of the Greek gods, in contrast to the images presented by other writers of his time. This art of translation transforms the fixed images of foreign culture through resistance to the ruling norms.

Keywords: Theo Hermans, Stuart Hall, Lawrence Venuti, Ulirich von Wilamowitz-Moellendorff, Friedrich Hölderlin

Mi-Hyun AHN is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German Language and Culture at Mokpo National University. Her main fields of research are

www.kci.go.kr

rhetoric, gender studies, and translation studies. Her publications include such articles as “Men in Crisis and transfigured Rhetoric” (2013), “Globale Stadt und lokales Leben: Eine Studie über Karin Duves *Taxi*” (2013), and “Liebesroman oder Zeitroman: Monika Marons *Animal triste*” (2012).
mihyunahn@mokpo.ac.kr

Received: 1 May 2014 Reviewed: 16 May 2014 Accepted: 28 May 2014
--